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석양지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5. 1. 17(토) ~ 2. 13(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학교의 위치는 수빅, 올롱가포시티 이며, 예전에 미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들어 외국인들도 많고, 고가로 보이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안전문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으며, 혼자 버스도 타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있을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우선 수업내용은 각 시간마다 책을 위주로 하며 과목마다,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프리토킹에 중점을 두는 수업도 있고 교과서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10분 정도는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프리토킹을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린 선생님도 있었지만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다들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과제는 과목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시간을 허비할 만큼 많지는 않았고, 자신이 원한다면 선생님께 말해서 조금 더 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Activity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어학원 내 다른 대학교학생들은 수빅 외 타 도시로 1박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학교는 허락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수빅 내에서도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변으로 여행 가는 것, 근처 호텔의 수영장 등 더운 나라이다 보니 수영위주의 활동이 많은데 비용은 원화로 환전 했을 때 비싸지 않은 1000페소 내외입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어학연수 파견 기간이 한국 날씨로 봄의 날씨라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조금 있어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안전은 최상급입니다. 수빅지역이 원래 안전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는 걱정이 됐지만, 거기서 생활을 해보니 왜 안전하다고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D)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사진을 보고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시설은 깔끔했고 도마뱀과 같이 생활 할 수 있으며, 시설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해 주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D)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는 다 한식이며 맛있었습니다. 다만 더운 나라이고 산 속에 있어, 식당 내부에 파리가 너무 많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처음에는 보통 택시를 이용하며, 익숙해진 후에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가 깔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수빅 시티 내부에는 트라이서클이 들어올 수 없어 많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34,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및 먹거리	500,000	
면세점 쇼핑	500,000	
합계	1,734,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우선 아는만큼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회화 패턴 책을 하나 구매하여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외워가서 써먹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출국 전 가서 다른 공부도 하겠다는 다짐으로 책을 몇 권 챙겨갔었는데 막상 파견 기간 중에 수업 일정만으로도 하루가 짧았고 다른 공부는 할 시간이 없어 오히려 책들이 짐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학원 내에 상비약이 있다고는 했지만 약이 항상 있지는 않아 출국 전에 한국에서 감기약, 소화제, 위장약 등은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어 조금만 잘못 설명해도 잘못된 약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학교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 면접을 보고 준비 할 때는 정말 100% 공부만하고 여러 가지 영어 책들도 챙겨가서 영어 실력을 완전히 향상해서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냥 그렇게 영어만 공부할거면 굳이 필리핀을 오지 않아도 될것 같았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책상 앞에만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룸메이트 친구들과만 올롱가포 시내로 나가고 그러다가 점점 여러 친구들과 함께 나가고 나중에는 선생님들과도 다 친해져 다 같이 나가서 맛집도 가고 놀았습니다. 생각보다 4주라는 시간이 정말 너무 짧았고, 생각보다 더 즐겁고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슬프고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조금만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매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파견기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문화체험과 선생님들과의 스피킹 위주로 4주를 보내와서 어떤 눈에 보이는 실력향상이 아니라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 자연스러운 스피킹, 듣기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학원에서 '토익스피킹'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토익스피킹 시험을 쳐볼 계획입니다.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감사드리며, 그냥 1주 2주 여행가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정이 들어 아직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또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정말 만약 가지 않았다면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며, 학원이나 다니며 보냈을 방학을 이렇게 값진 경험들과 소중한 4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근처 호텔 수영장</p>	<p>첫 번째 단체 활동 펀다킷 섬</p>
	
<p>놀이공원 바이킹에서</p>	<p>처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한 여행 크리스탈 비치</p>
	
<p>펀다킷 해변에서 스킨스쿠버 중</p>	<p>마지막 주말, 물 색이 너무너무 투명했던 그란데 아일랜드에서</p>

